

2018 · 05



암환우와 그의 재환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호주호스피스협회

(Kor) www.sydneyhospice.com.au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Eng) www.australianhospice.com.au

제2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Meredith Nursing Home, Strathfield, NSW, April 16 2018 (위))
크로마 하프 연주(Chroma Harp Playing) (아래 좌)
생일축하(Birthday party)-나상홀 환우의 생일을 축하하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아래 우)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18) Even when I am old and gray, do not forsake me, O God, till I declare your power to the next generation, your might to all who are to come. (Psalm 71:18)

월간 • 통권 9호
(Vol. NO. 9)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암환자와 그의 제할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8

05

C · O · N · T · E · N · T · S

02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 ACC 호스피스 봉사사역과 함께-

06 ACC 호스피스 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제2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호스피스에서 기도 드리는 97세의 "웃" 암 환우가 계신 Meredith Nursing Home에서 가졌다. 각 자의 말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죽음 자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 자체 이었다. 특별히 솔로로 "고향"을 부르신 90대의 "C" 봉사자는 오래 전에 서로가 친구였던 "웃" 환우를 만나서 반가워 하였다. 예전에 친구였던 분들이 한 분은 노래하는 봉사자로 한 분은 환우로 만나니 만감이 교차되었다. Nursing Home에 계신 환우인 Irena의 생일을 맞이하여 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축사에서 생일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그녀를 방문한 자녀의 눈 속에 흐릿함이 가득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 ACC 호스피스 봉사사역과 함께-

- 아름다운 호스피스 C 봉사자

지난 날 열정만으로 겁도 없이 선교 지에 가 본적이 있다. 일 년 가까이 지냈지만, 냉랭한 마음만이 있을 뿐 부르심의 깊은 뜻을 몰랐다. 나는 선교에 대한 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선교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들도 다 똑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한 달을 지내면서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 되었던 한 사람을 보았다. 그 분은 목회자가정에서 태어나 기도와 함께 성장한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 분을 통하여 "사람은 성령님의 돌보심과 믿는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새롭게 빚어지나 보다"라고 느끼면서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자가 된다는 것은 기도로 빚어지는 거룩한 작업일 것이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보낸 그 일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교훈이었다고 믿는다.

그 후로 나는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부러웠고 나도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었다. 적어도 우리 집에서 나부터라도 기도로써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테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였다. 그러던 중 작년 추석 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다.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는데,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암에 걸리 셧다"고 하셧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믿음을 마치 심약한 자들이 하는 신세 타령" 정도로 보시는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부터라도 먼저 믿음의 가문으로 서야지"라고 다짐했던 마음이 이제는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 졌다.

교회의 여러 중보 기도 팀에 기도를 부탁 드렸다. 호스피스 중보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께게도 부탁드렸는데, 아빠의 수술 날짜가 마침 월요일이라 호스피스 월요 중보기도회 때, 수술 시간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참으로 감사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감사한 마음에 암 환우들과 함께 하는 토요일 바닷가 걷기도 참여해 보았다.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시는 섬김의 손길들이 아름다웠다. 몸에 좋다는 건강 도시락들을 각자 준비해 나눠 드시고 간단한 체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사와 진행을 함께 하시니 마음과 영혼은 분명히 더 강건해 질것 같았다.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한편, 그 동안 직장 때문에 호스피스 음악회 공연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기회가 되어서 4월 16일 월요일에 있는 호스피스 음악회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월요 중보기도회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다. 콘서트 날이라 빨간 티를 입으신 호스피스 회원들께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였고,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경건회가 시작되었고, 말씀을 나눈 후, 곧 이어 암 환우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되었다. 90여명의 환우들 이름에 아빠의 이름이 있었다. 환우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시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며, 지난번 선교지 마지막에 마음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구나. 이곳에도 기도의 씨앗이 뿌려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굳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성령을 부으시며, 이름 불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구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 많은 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성령으로 기도로 애쓰시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 호스피스에 있으니 나의 부모님과 모든 환우 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리라 믿는다. 중보기도를 마친 후 과일을 나누며,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콘서트 장소로 출발하였다. 이번에는 Strathfield 에 위치한 Meredith Nursing Home 에서 음악회를 갖는데 특별히 고령이시지만 콘서트 솔로 봉사자로 자원하신 Choi 권사님께서 “고향”이란 노래를 부르신다. Meredith Nursing Home 에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 97세 되신 C 권사님이 계신 곳이다. 아름다운 음률의 플루트를 시작으로 오카리나 연주, 은혜로운 Worship Dance, 연이어진 Drama Therapy, 그리고 화려한 부채춤이 나올 때는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카메라 셔터 (camera shutter)를 열심히 눌렀다. 한창 무르익은 콘서트가 Finale로 접어 들게 되면서 Chroma harp 연주와 함께 환우들이 감격의 눈물도 흘리기도 하였다. 특히 그날은 환우 중 한 분이 생일이라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솔로로 노래 하셨던 Choi권사님께서 97세 되신 C권사님을 알아 보시고,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였는데 여기 있었구나. 나를 알아보겠어? 나 Choi 야”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민 초창기에 함께 친구로써 지냈던 시절을 상기시켰지만, C 권사님은 치매로 인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안타까웠지만, 오랜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환우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봉사자들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콘서트이었다.



위) 제21차 콘서트- 솔로(90대) 최명순 봉사자

아래) 드라마 치료 -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호스피스 봉사자의 모습(Leader: 인성실)

My Lord, My Lord

- Volunteering with ACC Hospice-

- Beautiful Hospice Volunteer C

I have been to a missionary field with daring eagerness. I have spent there almost one year, not realizing the meaning of calling but with cold heart. I joined the missionary work there with great expectation and vision bu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missionaries on the field were all mere sinners like me, disappointed with them. In my last month there, however, I noticed one very special person. Born and raised in a minister's family, that person showed how a person with parents' dedicated prayers could be by his attitude. Through him, I learned again how important the prayer is to Christians, perceiving that "A person can be renewed by Holy Spirit's caring and fellow believers' intercessory prayers." Being a consecrated Christian may be holy obligation based on a life committed to prayer. I believe that this is the instruction God wanted to give me from one-year missionary work.

Since then, I was envious of children whose parents pray for them and hoped to be a prayer warrior. So, I made up my mind to be a prayer myself to lead our household into a family of faith.

Meanwhile, during Chusok holiday, I rang my parents in Korea to say hello but Mother was different from usual, making me anxious. She was trembling and told me that Father was diagnosed with cancer. At that moment, it crossed my mind that this is God's calling to "Return to me" because by that time my parents had regarded faith as an outcry of the weak-hearted. My pledge "I will set a family of faith from my prayer" has now turned into a situation where my parents must stand in faith ahead of me, making me hard. For that reason, I asked intercessory prayer to several prayer teams of my church. I also asked to deaconess and lay deacons who attended in ACC Hospice prayer sessions which held on every Monday. The operation date was Monday and I heard that they prayed to God the ruler of all things for the operation of my father. I really appreciated it and the surgery was successful. With the heart of gratitude, I joined the Saturday event "Walk on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e serving hands for every family attended were beautiful. They shared healthy food one another and did light exercise together. God was there with them throughout the event and it made me certain that their mind and soul would be stronger.

In the meantime, I thought I could not see the Hospice concert because of my work but I had a chance to join for the first time. Thus, on 16 April, I went to Monday morning prayer meeting for the first time to join the Hospice concert in the afternoon. There had been a few members already. They were all in red T-shirt for the concert, preparing for the prayer session. With warm cups of tea, the prayer meeting started. We read and shared the Scripture followed by the intercessory prayer session for cancer patients. There was my father's name in the list of 90 cancer patients. As I saw them pray calling the people's name one by one, I felt the heart of God that he had given to me at the end of the missionary field. I thought 'God reveals himself through the people who pray. There is the seed of prayer here. He hears their prayer and heals now, pouring out the Holy Spirit to the hard-hearted. God is making people here in the prayer into his own form. The prayer in this place would please God's heart.' Their prayer remains gracious to me. Here are all



위) 크로마 하프 연주와 함께 전체 봉사자의 환우
치료현장
아래) 오카리나 연주 (김경옥 봉사자)

prayer warriors who pray and serve for many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o that they can listen to the good news, which gives me confidence that God will not forget my parents and all patients. Finishing the prayer session, we had lunch and the hands of preparing lunch looked very special.

After lunch, we headed to the Meredith Nursing Home in Strathfield for the concert. In this nursing home, there was a 97-year-old deaconess C the hospice volunteers are praying for. As for the concert solo, a deaconess Choi as a volunteer stood on the stage with a song titled 'homeland' in spite of her old age. With beautiful melody of flute, ocarina performance, gracious worship dance, and dance therapy followed. When the splendid fan dance began, the staff there started to take pictures, deeply moved. As the concert led to the finale, some audience shed tears listening to Chroma harp. The concert concluded with a birthday song to celebrate one resident's birthday.

What was surprising was the deaconess Choi who sang solo today saw the 97-year-old deaconess C and said, "I haven't heard from you for a long time. Now I know you are here. Can you recognize me? I am Choi." She tried to remind C of their early days of immigration, but C did not recall due to dementia. That was pitiful, but it was a very meaningful concert where old friends can encounter, the heart of the audience can be healed and volunteers' talent can be shared with others.

History of ACC Hospice

16/4/2018..21st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NSW)
 12/3/2018 20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NSW)
 22/2/2018 19th Hospice Concert (-Special Invitation-(Shalom Center,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1/2/2018 Sent to missionary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Melbourne Hospice (Pastor Soon Hee Lee)
 23~25/1/2018 1th Hospice Visiting Chaplain Training
 22/1/2018 18th Hospice Concert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BSW)
 20/1/2018 "500th Walking Along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event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18/12/2017 17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NSW)
 4/12/2017 Award for ACC Volunteer's Activities from the Korean Australian Community Support Incorporation
 27/11/2017 2nd Checed Healing Performance (Ainsley Nursing Home, Burwood, NSW)
 20/11/2017 1st ACC Volunteer Conference (St Philip's Anglican Church, Eastwood, 4:30 pm)
 (Winners of Certificate of Appreciation from Baptist Care: Keum Kui Lee, Jung Hee Song)
 20/11/2017 16th Hospice Concert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NSW)
 30/10/2017 15th Hospice Concert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NSW)
 23/10/2016 First Checed Healing Performance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25~29/9/2017 Thir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and First Aid Training
 25/9/2017 "14th Hospice Concert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9/2017 Special guest speaker, Dr. Tae Sik Jung (Clifton Gardens, 1pm)
 25/8/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Ko Shin University Hospital
 14/8/2017 13th Hospice Concert(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kville)
 12/8/2017 5th SICA General Meeting and 1th ACC General Assembly
 10/7/2017 12th Hospice Concert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12/6/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Anyang Sam Hospital
 5/6/2017 11th Hospice Concert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8/5/2017 "10th Hospice Concert (Cooinda Court,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5/4/2017 ~ 27/4/2017 Secon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Kye Myung University, Dong San Hospital Hospice
 10/4/2017 9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20/3/2017 8th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20/2/2017 7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 Lee, Ji Soo Jang, Jung Ok Jang)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28/9/2016. 3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 ACC 호스피스 알림 >>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8.4.16 제2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Meredith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8.3.12 제2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 2018.2.22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8.1.22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 2018.1.20 제 500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행사 (장소: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NSW)
- 2017.12.18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ylliville)
- 2017.12.4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 2017.11.2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 2017.10.30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 2017.10.23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7.9.25 제37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7기 21명, 제17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 2017.8.14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정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 2017.7.10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와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페이지)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합예배: ACC-Baptist Care)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ummer Hill Nursing Home)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13명 수료)
~10.6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본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2016.8.20 총회(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ABN: 17 110189 115
(호주호스피스 협회)설립 인준: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의장): 김정대
Treasurer(사무총장): 송정희, Secretary(부대표): 성순자, Audit(협동사무총장/감사): 조철호

2016.8.3 호주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BN 17 110 189 115) ACCN 및 NSW Faire Trading 비영리단체 등록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든지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 모집

호주호스피스협회(ACC)에서 모든 봉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
- * 미술치료 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환우들에게 미술로 내적치료 봉사하실 분
- * 음악치료 봉사자- 악기(피아노, 기타 등)로 너싱홈 환우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실 분
- * 영어통역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봉사 팀과 타국 환우들을 보살피실 수 있는 봉사자
- * 그 외 자신이 가진 재능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시 원하시는 분

● 호주 시드니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거리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 대구 동산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 준비물: 도시락, 물
-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제2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 장소: Dorothy Hanson Lodge Center, Baptist Care, 159-165 Balaclava Rd, Macquarie Park NSW 2113
- * 일시: 2018년 5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어버이날 특별공연 및 시상식)

소식지 ACC 회계자료 (3 / 2018)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통신비	69.35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인쇄홍보 비	686.1	
Elhis Kim	1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2515.95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관리비	237	
Ben Yoo	100	Donation	식대 및 부식비	169.9	
Harp group	50	Donation	경조비	0	
Onnuri Sydney Church	500	Donation	행사 및 세미나	157.15	
In Hee Lee	2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45	
Sung Taek Yoon 930	20	MEMBERSHIP FEE	회계사.변호사	0	
차원순	10	MEMBERSHIP FEE	보험료	1020	
Peo Sim	20	MEMBERSHIP FEE	water	0	
Jung ki Min	50	MEMBERSHIP FEE	First aid	0	
Dong Jin Lee	50	MEMBERSHIP FEE	기타	22	
Jong Soon Kim	100	MEMBERSHIP FEE	Total	4922.45	
Soon Do Yang	60	MEMBERSHIP FEE			
sung sil In	120	MEMBERSHIP FEE			
항의범 430	20	MEMBERSHIP FEE			
YOUNGJUN CHOI	120	MEMBERSHIP FEE			
GNA SOLUTIONS PT	100	Donation			
INTEREST PAID	0.99	Westpac 23			
INTEREST PAID	0.12	Westpac 15			
수입 Total	1581.11				
*SICA (nab)	400				
sydneylightandsalt	300	Donation			
jingeun yoon BOK CHOI	100	Donation			
*Donation					
양 사비나	떡 1box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6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Scope of ACC Activities)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걸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데에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걸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 홍보활동
 - ACC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인들의 기부금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감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We striv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who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help make a wise choice for a good treatment and healing.

1. We serv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 We provide translation service, counseling and other helps for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2. We help with the cancer treatment.
 - We help patients meet others who are fighting with cancer or have already won.
 - Psychological treatment is a great help for the patients. Through various programs of laughter, drama and music, we help the patients stay happy.
3. We help the community be aware of health improvement.
 - The patients and volunteers (and community) walk the beach together so that the volunteers (and community) improve their health at the same time.
4. Hospice and Creation Medicine Education
 - Attitude of helping the weak in hospice and the biblical principle of physical health improvement are encouraged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5. Liaising with the community - We work together with the community.
 - We publish monthly magazines, "Sydney Hospice."
 - We hold annual events to give a new hope for the patients and raise a health awareness in the community.
6. We support the deathbed and funeral and the bereaved family.
 - We help look for budget conscious funerals.
 - We help the bereaved family recover and get back to normal life.



◎ 발 행 처: ACC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17 110 189 115)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 (Eng) / www.sydneyhospice.com.au (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2018년 4월 30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
- 인쇄(Printing): JC 우리인쇄소